

좋은 약은 입에 쓰기 때문에 당의정이 생긴 것

■ 먹기 힘든 약을 먹는데에는……

약은 치료를 위해서 있는 것. 그러므로 그 맛이 반드시 맛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웨이퍼(wafer). 쓴 약가루를 웨이퍼에 싸서 한입에 넣으면 꿀꺽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웨이퍼가 너무 커서 먹기가 어렵다거나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위한 약이 당의정으로 조제되고 있다.

직장의 레포츠도 오락이나 노래방 등에 비

교하면, 약간 고달픈 유흥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레포츠는 상쾌함, 달성, 교류, 즐거움이라고 하는 유흥의 양성적 면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다. 오락이나 노래방이 달콤하고 화려한 사탕이라면, 직장 레포츠는 당의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직장의 레포츠에서 달콤한 당분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것은 사원들이 「재미 있을 것 같다」 「즐겁다」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도록 기획하는 일, 홍보방법, 운영방법 등이라 하겠다. 요점은 사원의 측면에서 각기 어떻게 하면 보다 사원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까를 생각하는 일이다.

■ 재미있게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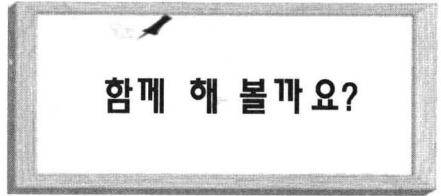
사원의 측면에 선다는 말은 사원 중에서 레크레이션 리더를 뽑는 것이 좋다는 발상이 아니다. 인간은 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원이면서도 직장 레포츠 리더의 입장이 되면 갑자기 레포츠 제공자측의 생각으로만 기울어지게 되어 「너무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지금까지 하던대로 한다」라든가 「그것까지 해주지 않아도 사원들이 더 의식을 높여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오히려 강력하게 한다.

이러한 발상의 기본 바탕에는 스스로 자신이 레포츠를 즐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즐거움을 만들어 낸다는 의식을 지니게 되면 참가하는 사원의 즐거움도 그와 같을 것이고 재미있어 하고 흥미있어 한다는

점을 기대하면서 차례차례 고안하여 그것을 기획, 홍보, 운영에 반영시켜 가야 한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놀러가서 「이렇게 하면 재미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라고 하면서 차례차례 놀이를 바꿔가며 놀았던 즐거움을 체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제공자 측이 참가자 측과 같은 시점에 서는 일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제공하는 레포츠의 기획을 할 때 무엇보다도 제공자 측이 즐겁게 생각하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결국 사원의 측면에서 제공자 측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레포츠 프로그램을 기획, 홍보, 운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락이나 노래방과는 다른 의미의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 즉 달콤하고 화려한 사탕이 아니라 사람이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를 안고 있는 효과있는 달콤한 음식, 당의정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 누구나 “높이, 더 높이—” 하면서 번쩍 번쩍 들어 뛰려면 까르르 웃었던 체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어린 시절의 감각을 되살려서 운동량도 충분한 놀이를 소개한다. 경기형식의 스포츠는 아니며, 협격해서 신체감각의 미묘함을 즐기는 신체활동. 어린시절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즐거운 것이다.

■ 공중날기

10명 이상이면 재미있다. 한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들은 2열로 나란히 마주 한다. 그림과 같이 마주선 앞사람과 팔장을 끼고, 공중을 나는 사람은 팔장 긴 팔위에 점프한다.

그러면 다른 멤버는 날아오른 사람을 앞 방향으로 밀어 올린다. 열의 맨 마지막은 조용하게 내려 놓는다. 날아오른 사람은 반드시 손을 쭉 펼 것. 팔을 내리면 자칫 사람과 사람사이로 떨어지는 수가 있다.



■ 풍차

6명이 원을 만들어 서로 팔목을 짚 잡는다. 한사람씩 걸러서 다리를 쭉펴고 앉고, 앉은 사람은 발뒷꿈치를 서로 맞춘다. “북풍이다”라는 소리를 지르면 앉았던 사람을 허리를 쭉펴서 올리고, 서 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한다. 마치 풍차와 같이 끼룩끼룩하며 돌고, 앉아 있는 사람은 풍차 날개와 같은 감각을 맛볼 수 있다. “남풍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 왼쪽으로 돈다. 앉아 있는 사람이 지치면 서있는 사람과 교대한다.



■ 우주 유행(宇宙 遊泳)

실내인 경우 천정이 3m이상이고 10m이상 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 3인 1조 로 하여 옆으로 나란히 선다. 중앙의 한사람 은 우주 유행 역할. 허리에 양손을 꼭 댄다. 양 옆의 사람은 팔을 받치듯이 하여 올린다.

「3, 2, 1, 제로!」하며 우주 유행 역할을 하 는 사람을 점프. 그에 맞추어 양옆의 사람이 들어 올린다. 잠깐이지만 마치 공중을 떠 다니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

〈勞動衛生에서〉

